논어 13편 자로 8장 · 원문·풀이

子謂衛公子荊，「善居室：始有，曰：『苟合矣；』少有，曰：『苟完矣。』富有，曰：『苟美矣。』」

독음 · 자위위공자형 선거실 시유 왈 구합의 소유 왈 구완의 부유 왈 구미의

쉬운 풀이(요약) · 위나라 공자 형은 재산이 늘어나는 각 단계에서 충분하다고 여겨 살림을 잘 꾸렸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謂 고할 위 위 / 衛 막을 위 위 / 公 공변될 공 공

荊 모형나무 형 형 / 善 착할 선 선 / 居 살 거 거 / 室 집 실 실

始 비로소 시 시 / 有 있을 유 / 曰 가로 왈 / 苟 진실로 구 구

合 합할 합 합 / 矣 어조사 의 / 少 적을 소 소 / 完 완전할 완 완

富 가멸 부 부 / 美 아름다울 미 미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